|  |  |
| --- | --- |
|  | 1  안녕하세요, 윤보영입니다. |
|  | 2  제 프로젝트는 프리코드캠프입니다.  프리코드캠프는 풀스택 웹개발을 배울 수 있는 교육용 플랫폼입니다. |
|  | 3  창시가 퀸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튜토리얼 형식으로 따라가기 쉽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. |
|  | 4 |
|  | 5 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건 수월했습니다. 우선, 수업에서 연습을 한 번 해 보았고 또 프로젝트에서 별도로 잘 정리된 문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프로젝트에서는 깃팟과 닷커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여서 다운받아 설치까지는 해 보았다가 익숙한 방법으로 돌아왔습니다. |
|  | 6  개발 환경을 설정하려고 이 문서를 열었을 때 맨 처음에 보았던 게 여러 가지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는 문구였다. 총 18개의 언어로 리드미, 코드오브건덕트 그리고 하우투셋업프리코드캠프로컬리 이 세 가지 문서가 대체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. 내 언어인 한국어에는 리드미와 코드오브건덕트 이 두 문서만 번역되어 있어서 하우투셋업프리코드캠프로컬리를 번역하게 되었다. |
|  | 7  600줄 정도 되는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. |
|  | 8 |
|  | 9  짧지 않은 문서라서 하다가 자주 지루해졌다. 한 번은 다른 거 할 건 없나 싶어서 열려 있는 이슈 목록을 보다가 퍼스트타이머프렌들리 라벨을 가진 걸 보았다. 자바스크립트의 한 튜토리얼에서 바운더리가 제대로 처리되어 있지 않는 거 같다고 하는 거였다. 그 이슈에는 튜토리얼을 본문이 실려 있었는데, 왜인지 오타인 거 같은 게 있어서 이슈화 할까 말까하다가 잃을 게 뭐 있나 이상하다 싶으면 그쪽에서 무시하겠지 뭐 하는 생각으로 내가 생각했 대로 고쳐서 풀 리퀘스트 했다. |
|  | 10  내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모더레이터가 나의 황당할 수도 있는 이슈를 비웃지 않고 친절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고 바로 답변해 주면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음에는 마스터 브랜치가 아닌 해당 이슈에 관한 브랜치를 만들어 풀 리퀘스트하라며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한 조언까지 해 주었다. |
|  | 11  이전에 마무리된 줄만 알았던 오타 파일이 내가 변경한 그 상태로 같이 풀 리퀘스트 목록에 있었다. 당황한 나는 그냥 그 상태에서 파일을 지워 버렸고, 같은 모더레이터가 실시간으로 그렇게 지워 버리면 나중에 멀지할 때 문제가 있으니 리버트하라고 지시해서 바로 그에 지시에 따랐다. |
|  | 12 |
|  | 13  번역 자체는 어려울 게 없었는데 깃허브와 커맨드 라인을 이용한 컨츄리부션의 전체 워크플로우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. 운이 좋게도 되게 빠르게 그 실수를 지적하고 고치는 방법을 바로 제시해 주는 프로젝트 모더레이터를 만나서 배운 게 많은 좋은 경험이었다. 그 사람의 이름은 이렇다. 다른 일을 하는 지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다른 풀리퀘스트와 이슈에 제일 먼저 답을 달고, 매일 컨트리뷰션을 하는 걸 보아서 되게 이 프로젝트에 애정이 남다른 거 같아 보인다.  원래 내가 첫번째로 선택한 프로젝트는 이게 아니었다. 그 프로젝트에서도 번역을 하고 있다가 다른 학생들은 뭘 선택했나 궁금해서 리스트를 보다가 같은 걸 선택해도 되는 걸 보고서 프로젝트를 바꾸기로 마음 먹었다. 왜냐면 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그냥 과제를 위해서 선택하기도 했고, 다른 사람하고 겹치면 안 되는 줄 알고 찾고 찾다가 찾은 거였지 사실 별 관심이 없었다. 프리코드캠프는 이전부터 들어 보기는 했었는데 그 프리라고 하는 데에서 왜인지 스캠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어떤 컨텐츠인지 본 적이 없었다.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냐하는 불신에서 그랬는데 마르코랑 ---이 선택한 걸 보고서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되었다. 번역 하는 일이였기 때문에 따로 팀원들하고 이야기할 건 없었는데 사실 둘이 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덕분에 현재 나도 프리코드캠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나 싶다. |
|  | 14  다음에도 뭘 한다면 이 프리코드캠프 프로젝트를 선택할 거다. 튜토리얼 본문을 번역해 보고 싶다. 그래서 나처럼 영어가 편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좋은 컨텐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말이다. |
|  | 15  여기까지가 내가 준비한 발표이고 따로 질문이 없으면 자리로 돌아가겠다. 들어줘서 땡큐! |